

기자가 본 일본의 화우산업

농민신문
이종순 기자

1. 일본 화우 사육현황

올 2월 현재 일본 내에는 화우를 포함해 육용우 283만8,0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는 수입자유화 직전인 90년의 270만2,000마리에 비해 다소 늘어난 규모. 자유화 이전부터 사육마리수가 급감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4년제인 95년은 296만5,000마리를 기록하는 등 280만마리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화우는 171만1,000마리, 교잡종은 64만4,000마리다.

그렇지만 사육농가수는 자유화 후 크게 줄었다. 90년 23만2,200가구에 달했던 농가수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97년 14만2,800농가, 2002년 2월 10만4,200농가로 12년 동안 절반이 줄었다. 반면 가구당 사육마리수는 90년 11.6마리에서 2002년은 27.2마리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번식우 사육규모는 9만가구에 63만7,000마리이다. 일본도 소규모 번식농가수가 감소하고 있어 육성에 나서고 있다. 화우 송아지값은 자유화 후 지속 상승, 2000년은 38만8,000엔까지 올랐고 값도 차별화됐다.

**사육능가 줄어도 마리수는 증가
양보다 질 소비행태로 화우고기값 품질별 가격차 커**

일본의 쇠고기 생산량은 광우병이 발생한 2001년에는 32만9,000t으로 줄었지만 2000년에는 36만5,000t이다. 생산량은 94년에 42만4,000t으로 최고에 달했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쇠고기 수입량은 자유화 2년제인 92년에 42만3,000t으로 국내산을 추월한 후 2000년에는 73만8,000t으로 급증했다. 이는 자유화 원년인 91년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특히 양보다 질을 요구하는 소비행태에 따라 화우고기값에도 품질별 가격차가 커졌다. 광우병이 발생한 2001년의 경우 화우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최고등급은 A-5등급과 A-4등급의 차이는 553엔

으로 벌어졌다. 2000년의 지육 1kg당 평균경락값은 1,970엔이다.

일본 화우산업을 조사한 조석진 영남대 축산학과 교수는 “일본은 95년을 기점으로 생산기반이 축소되면서 송아지값이 상승하고 수입조사료에 의존하는 집약적인 번식 전업농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2. 화우산업의 생산과 개량

일본은 화우 사육농가들이 번식과 비육으로 이원화(二元化)돼 있다. 번식농가들은 반드시 혈통이 우수한 종모우를 통해 100% 인공수정해 송아지를 생산하고, 자우(子牛) 등기와 혈통등록을 하고 있다. 또 종모우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송아지를 4~5개월령에 거세한 후 8~9개월령까지 길러 우시장 경매로 비육농가에 높은 값에 공급한다. 사카모토 전국화우등록협회 가고시마현 등록과장은 “암소는 송아지를 낳을 때까지 낳는다”며 “초산 후에 도축하는 경우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아지값 40~50만엔, 큰소값은 70만엔 수준이라는 것이 일본 축산관계자의 설명. 효고현 북부농업기술센터 축산부 다케다씨는 “수소는 31개월령에 생체중량 700kg까지 증체시켜 도축한다”며 “송아지값이 높아진 것은 그동안 꾸준히 개량을 해왔기 때문이며, 혈통에 따라 가격 차가 크다”고 밝혔다.

번식·비육 농가 역할분담 철저

송아지값 높아진 것은 개량 효과, 혈통에 따라 가격 차 커

비육농가들은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고품질 육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독자적인 사육 매뉴얼을 작성, 매일 사육관리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등 각 지도기관과 연계해 사육기술 연구에 힘쓰고 있다.

일본은 화우 개량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혈통등록과 체형심사, 육종 집단개량과 계획교배, 산육 능력검정 등의 방법을 통해 화우 능력을 개량하고 있다. 중앙가축개량센터 니야마 이사는 “최근에는 핵복제 검정과 DNA마커 육종 및 고품질 소에서 수정란 채취 후 쌍자송아지 생산 등의 신기술과 종모우 선발 체계도 광역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화우의 유전적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선발형질 육질 편중 및 비육기간이 길어지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과도한 근친교배를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제8회 전국화우능력공진회도 ‘강력한 힘과 육종가에 의한 빠른 개량과 생산확대’라는 테마로 열렸다. 대회참가 화우농가들은 나무로 만든 계류사에서 소와 함께 숙식을 하고 출전할 때는 해당 현에서 나온 관계자들이 축하해줄 정도로 화우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

3. 화우산업의 유통과 브랜드화

화우고기 소비자판매값은 브랜드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화우 브랜드는 100g 당 1,500~3,000엔 수준에서 판매중이지만 유명브랜드는 5,000엔에도 판매된다.

나고야의 한 고급백화점에서는 <마쓰사카화우>를 안심 100g에 5,000엔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 백화점 판매책임자는 “<마쓰사카화우> 최고등급인 A5 등급은 100g에 8,000~1만엔에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디서 누가 생산한 화우고기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는 출하우 이력증명서와 생산자 혈통증명서까지 비치,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 송아지는 가축시장 중심의 경매를 통해 유통되고 큰소는 도축 후 지육형태로 도매시장에 상장 경매된 후 식육센터를 통해 거래된다. 산지 중심의 도축가공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환경문제도 해결한다.

**유명브랜드 100g에 1만엔
150여 브랜드 - 지역단위 개량체계 구축, 철저한 생산관리**

최근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부분포장육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도쿄 나리타공항 근처 쇼핑센터 식육코너에는 화우고기 포장육이 많이 진열돼 있었는데, 흑모화우를 100g 당 598엔에 판매하고 있었다.

수입생우는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수입돼 일관 사육된 후 유통되고 있으나 수입마리수는 감소 추세다. 사카모토 화우등록협회 가고시마현 등록과장은 “화우 정액을 미국과 호주의 소들과 수정, 송아지를 들여와 사육한 후 ‘아메리카화우’로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데, 값은 수입쇠고기와 화우의 중간”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광우병(BSE)의 영향으로 모든 소에 바코드 귀표를 달아 소가 도축되면 어디서 누가 도축했는지를 알 수 있게 제도화했고, 판매업소에서도 식육위생시험소가 발행한 광우병 검사결과 통지서를 비치해놓고 있다.

화우능력공진회에서도 각 현이 자가지역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지역특산우의 사진과 육질 등의 자료를 관람객들에게 배부하고 홍보에 열심이다.

일본에는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한 150여개의 화우 브랜드가 있는데, 이 가운데 <마쓰사카><고베><오우미> 등이 유명 화우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화우 브랜드들은 품질고급화를 위해 지역단위 개량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비육우 생산관리와 지정판매점 판매 등으로 명성을 유지한다.

효고현 축산과 와타나베씨는 “전농과 현청, 기술센터가 삼위일체가 돼 브랜드 화우를 지도한다”고 밝혔다.

4. 화우산업의 정책방향

일본은 1988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타결에 따라 육용송아지 가격안정제를 도입했으며, 쇠고기 수입관세를 송아지 재생산 확대 등 축산관련사업 재원 용도로 명확히 하는 등 송아지와 비육우 대책을 강화했다. 1991년의 쇠고기 수입관세는 70%였지만 2000년은 38.5%로 낮아졌다.

일본은 축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육용자우(송아지)생산자보급금제를 기본으로 육전용종의 번식지원 확대, 쇠고기 증산 및 자급률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까지 쇠고기 생산량은 63만, 사육마리수도 31만7,000마리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율적이고 종합적인 축산업 재편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별로 재원이 다르며 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 농가가 일정액의 자금을 부담하는 수혜자부담제가 발달해 있다.

송아지·비육우 값안정 주력 지자체별 화우 육성위한 각종 지원사업 전개

우리나라의 송아지생산안정제와 같은 ‘육용자우생산자보급금제’는 9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평균가격이 보증기준가격을 밑도는 경우 도도부현 육용자우가격안정기금협회에서 사전에 계약을 체결한 생산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생산농가 청약금 부담액은 정부가 50%, 도도부현과 생산농가가 각각 25%씩이며 올해 보증기준가격은 30만4,000엔이다.

다산장려금과 비슷한 ‘자우생산확대장려사업’은 송아지값 하락시 번식암소를 유지·확대하는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번식암소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 번식암소를 늘릴 경우 장려금을 주는 ‘중핵(中核)육용우번식경영육성대책사업’을 97년부터 실시했다. 비육우 수익성이 악화됐을 경우 가족노동비를 보전해주는 육용우비육경영안정긴급대책사업과 육우 다두(多頭) 생산을 위한 육우비육단지조성예타사업도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화우를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들이 특색있게 전개되고 있다.

가축개체 식별을 위한 이표장착을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올 5월에 완료됐다. 이표장착 대상은 모든 소로 455만마리이며 35억엔이 투입됐다. 이표장착 소 관리를 위해 별도의 가축개체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5. 화우산업의 광우병 극복현장

2001년 9월 지바현의 젖소에서 광우병(BSE)이 발생, 화우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그렇지만 최초 발생 후 1년이 지난 현재 일본은 각종 긴급대책에 힘입어 광우병 영향을 극복해내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가축위생 위기관리체제를 정비했다. 도축장에서 광우병 검사체제를 확립, 도축되는 모든 소에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우병 감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육골분 등을 수입하거나 사료로 제조하는 것을 전면 정지했다.

또 국산 쇠고기 소비가 줄어들자 30억엔을 투입, TV 광고, 쇠고기 특판 캠페인, 요리세미나 및 행사 등을 잇따라 개최했다. 가축개체식별사업을 통해 가축의 이동정보·급여사료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고 도도부현과 농협이 급여사료를 관리토록 한 데 이어 산지식육유통센터도 정비했다.

**소비자 신뢰회복에 초점, 가축위생 정책·기관 개편
안전성 확보위한 행정조직 개편과 관계법령 정비도 추진중**

특히 막대한 자금을 투입, 소 사육농가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했다. 38억엔을 투입, 우육가격안정긴급대책사업을 실시했으며 비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비육우 마리당 조수입이 가족노동비를 제외한 생산비보다 떨어졌을 경우 차액을 1개월마다 보조해주는 'BSE 대응 육용우비육경영특별대책사업'에 675억엔을 투입했다. 또 화우 번식농가가 송아지를 판매할 때 값이 발동 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일정액의 장려금을 주는 자우생산확대장려사업도 도입했고 이미 실시중인 육용자우생산자보급제도 3개월에서 1개월 단위로 보조금 교부기간을 단축했다.

대가축농가에게 사료구입비 등을 융자하는 광우병 대응 축산경영안정자금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식육판매점과 소육점(燒肉店) 등 외식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을 융자해줬다. 노폐우를 수매해 보관하며 육골분의 소각처분 등에 필요한 경비도 조성하고 육골분 공급체제도 정비했다. 소해면상뇌증 대책특별조치법도 제정됐다.

이런 대책에 힘입어 쇠고기 도매값은 2월에 1kg당 393엔까지 하락했으나 9월에는 1,063엔으로 회복됐다. 불고기 수요도 지난해 9월 초를 10으로 할 때 올 8월 106으로 늘었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식(食)과 농(農)의 재생계획'에 따라 소비자 앞으로 바짝 다가가는 농림수산행정 개혁의 구체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조직의 개편과 관계법령 정비도 추진중이다.